



LEARN & ACT 교사 가이드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목차

들어가며	1
1.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2
2. 글로벌 불평등 현황	3
3. 글로벌 불평등 원인	5
4.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6
5.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7
6.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8
7.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	10
8.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10

도입 1 : 심각한 수준의 지구촌 불평등



▶ p.03

● 억만장자들의 천문학적인 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2020년 옥스팜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는 세계에 2153명이 있었고, 이들의 재산 총액은 8조 7000억 달러에 이르러, 하위 60%인 46억 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5000억 달러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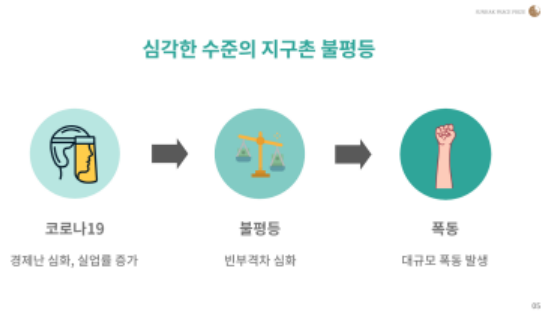


▶ p.04

● 세계 경제 불평등 지도(map of GDP per capita, 2020)

국가별 1인당 GDP(국내 총생산) 격차를 나타낸 지도로, 붉은색 계열일수록 1인당 GDP가 낮다. 학생들에게 지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관심을 유도한다.

-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은 주로 어디인가요?
-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 p.05

● 코로나, 불평등, 대규모 폭동

202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무능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극심한 빈부격차다. 남아공은 지니계수가 0.7로, 아이티, 레소토왕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2021년 브라질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도 근본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원인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524로, 189개국 가운데 9위에 올랐으며 최소 2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쿠바, 페루와 칠레 등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정치적 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균형을 계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통상 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본다.

1.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01.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평등 : 차별이 없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
 불평등 :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한 상태

| 사슬처럼 이어진 불평등의 고리들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교육, 빈곤은 병치레와 질병,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그 자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 p.06

● 평등이란? 불평등이란?

평등은 ‘차별이 없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누거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평등이다. 불평등은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 불평등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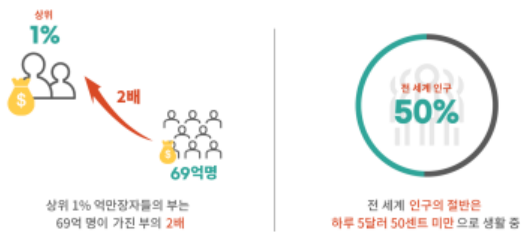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불평등이 만연하며 이를 둘러싼 차별과 불이익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 사슬처럼 이어진 불평등의 고리들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 갈등, 빈곤은 범죄와 질병,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은 주로 동시에 나타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국가 간 불평등 또한 심각하다. 국가 간 불평등은 주로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하며, 정치,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의견은 국제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배제된 국제적 의사 결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고, 빈곤국이 겪는 여러 문제를 악화시킨다.

2. 글로벌 불평등 현황 (1. 부의 불평등) (출처: UN, OXFAM)

02. 글로벌 불평등 현황 (1)



▶ p.07

● 상위 1% 억만장자들의 부, 69억 명이 가진 부의 2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는 69억 명의 인구가 가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다.

● 상위 1% 억만장자들의 부는 빠르게 증가 중

1980년에는 지구촌의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 소득의 16%를 차지했고 하위 50%는 8%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상위 1%가 전 세계 소득의 22%를, 하위 50%는 1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한다면 2050년에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39%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 인구의 절반, 하루 5달러 50센트 미만으로 생활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4억 명이 하루 5달러 50센트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2. 글로벌 불평등 현황(2. 의료 불평등) (출처: UN, OXFAM)



● 5세 이전 사망률, 빈국은 부국의 3배

아동의 5세 이전 사망률은 가장 빈국(20%)이, 가장 부국(5%)보다 3배 이상 높다.

● 개도국의 산모사망률, 시골은 도시의 3배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산모사망률은 감소 추세지만, 시골지역 산모들은 도시지역 산모들에 비해 임신·출산 중 사망률이 3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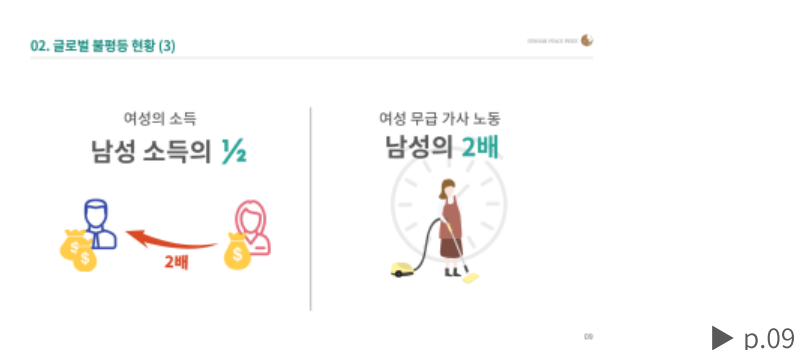
● 평균수명, 가난한 지역민이 부유한 지역민보다 10~20년 짧음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극심한 빈곤에 빠지고, 매일 1만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보다 10년~20년 정도 평균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 전 세계 장애인의 80%, 개발도상국 거주

전 세계 장애인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이 중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2. 글로벌 불평등 현황(3. 성별 불평등) (출처: UN, OXFAM)



●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1/2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50% 미만을 벌어들이며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부터 발생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통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 여성 무급 가사노동, 남성의 2배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2배 더 많은 시간을 무급 가사노동에 쓴다.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0조 8천억 달러이다. 이는 여성들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3. 글로벌 불평등은 왜 발생했을까요?

03. 글로벌 불평등 원인

글로벌 불평등은 왜 발생했을까요?



10

▶ p.10

● ‘불안정한 정치’, 나라를 가난하게

전쟁과 정치적 갈등을 겪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할 확률이 높다. 전쟁은 국가의 통신, 시설 등을 파괴하고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지속할 경우 투자나 기업 활동은 둔화시킨다. 또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투자 및 다양한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국가는 경제난을 겪는다.

● ‘부패’, 복지 부족으로

부패와 범죄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국민 복지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 공공 기반 시설, 교육, 의료, 연금 및 사회 보장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련,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다.

● ‘열악한 경제 구조’, 빈곤의 악순환으로

선진국의 경제 구조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특히 의약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가난한 국가일수록 농업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성장이 힘든 구조다.

● ‘낮은 교육 수준’, 성장을 어렵게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대체로 1차 산업에 몰두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을 장착하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장악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 발달은 물론 창의적 경제활동 또한 이끌어낼 수 없다.

4.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04.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

▶ SDGs 10, 이해하기

https://youtu.be/50Qc26w_0
<https://youtu.be/H4pI2XcCHbw>

11

▶ p.11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 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이 중 10번째 목표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Reduced Inequalities)’이며, 구체적으로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내세우고 있다.

●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의 의미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여러 형태의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불평등의 뿌리는 ‘경제력 차이’이며, 이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소외와 결핍을 야기한다.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기아에 허덕이고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인류 모두의 평화롭고 안정된 발전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그 해소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04.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SDGs 10 세부 목표]

-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 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10.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 보호 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업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 10.6 경제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 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외경제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정규직이고 적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10.8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 10.9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중소도서개발도 및 내륙 개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효율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 10.10 이주와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12

▶ p.12

● SDGs 10 세부 목표

-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 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 보호 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 10.6 경제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10.8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 10.9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 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흐름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 10.10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5.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 p.13

●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 정책'

지구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와 복지 정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공정한 '세금' 시스템

부자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누진소득세(소득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소득세), 상속세(사망 이후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등 주로 부유층과 관련 있는 세금 영역의 세율을 인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캠페인)

06.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캠페인]



▶ p.14

● 옥스팜 캠페인, Even It Up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지구촌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 회피 중단’, ‘모두를 위한 공정한 임금 지급’, ‘보건과 교육 서비스의 확충’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옥스팜은 매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불평등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 역만장자들의 기부 서약(The Giving Pledge)

기부 서약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빌 게이츠 부부가 2010년 공동 설립한 자선단체다.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가입 대상이 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회원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있으며, 부의 분배를 통해 세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 국제기구 및 단체)

0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 국제기구 및 단체]

1) 옥스팜(OXFAM)

: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구호단체



2) 세계은행(IBRD)

: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지구촌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 p.15

● 옥스팜,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단체

옥스팜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가 가난구제를 위해 설립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80여 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가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도움 활동을 전개했다. 옥스팜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며 저개발국의 식수 문제 해결, 식량 원조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사업 전개는 물론 각국 정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입안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세계은행,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지구촌 공동 번영’ 추구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국가들의 재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지구촌 공동 번영’을 목표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고 빈곤 상태에 빠진 국가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 다른 나라의 돈을 빌리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둔다. 2021년 기준 189개국이 가입했으며, 130개의 지부에서 활동 중이다.

6.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다양한 아이디어)

0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다양한 아이디어

- ✔ 야간 불빛 세기만으로 빈곤 파악, 세심하고 효과적인 지원
- ✔ 빈곤층을 위한 특수 안경, 안경질 안 거도 스스로 도수를 조절 가능
- ✔ 패션 레볼루션, Who made my clothes?



▶ p.16

● Marshall Burke 팀, ‘불빛의 세기로 경제 규모 파악’

스탠퍼드 대학의 마셜 버크 교수 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야간 및 주간 사진들을 수집하여 빈곤과 격차 분석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마련했다. ‘구글 맵’을 통해 무료로 얻은 고화질의 인공위성 영상을 인공지능(AI)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다.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야간 사진에서 불빛의 세기와 넓이를 보고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들의 시도는 빈곤 지역의 경제규모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게 하였고, 이 지역에 더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 Josh Silver, ‘빈곤층을 위한 안경’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 조쉬 실버는 시력이 나쁜 빈곤국 사람들을 위해 20년 이상 연구하여 특수 안경을 개발했다. 사용자 스스로 광학 렌즈의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획기적인 안경은 안경원에 가기 힘든 지역에 사는 빈곤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가격 또한 파격적으로 낮춰 수백만 명의 빈곤층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패션 레볼루션, Who made my clothes?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다국적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만들던 노동자 1,133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옷을 만드는지 소비자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패션 레볼루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봉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0여 개국의 탐 모델, 의류제조사들이 참여하며 대규모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7.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



▶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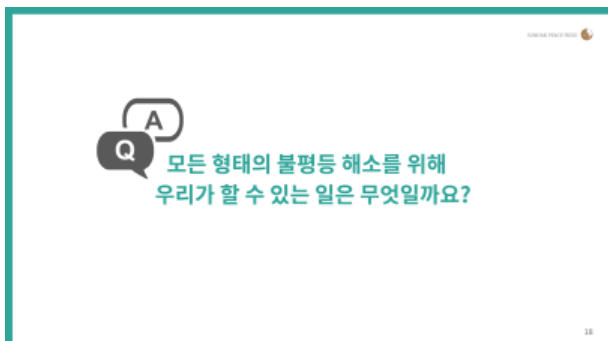
● 백신 불평등, 부의 격차를 더 크게

코로나19 백신 보급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선진국은 인구 대비 70% 이상이 최소 한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개발도상국은 접종률이 3%에 불과하다. 백신 보급의 차이는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부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기준,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3.6%, 영국 5.5%, 중국 5.8%인 반면, 백신접종률이 27.71%인 멕시코, 27.08%인 콜롬비아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2%, 3.5%에 불과하다.

● 불평등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취약계층에게 먼저 찾아간다. 오래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던 취약계층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부자와 중산층은 전염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선택지 없이 코로나19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위 1%만 장자 1000명은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치로 부를 회복하는 데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회복 수단이 부족한 전 세계 극빈층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옥스팜 2021 보고서).

8.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브레인스토밍)



▶ p.18

유튜브 영상 활용, '팬데믹이 생계·소득·식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P19)

https://youtu.be/rAmG_9pkF3c